

Ⅱ. 本館特別事業實績

1. 圖書目錄出版

① 奎章閣圖書韓國本目錄 (全六冊)

1963年7월에 始作하여 1964年7월에 整理가 完了된 韓國本(18,774部 69,362冊)의 部別目錄을 油印物로 刊行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目	錄	收錄冊數	面 數	刊 行 日
1	集 部	13,416	447	64. 4. 16
2	史 部 1}	47,944	484	65. 3. 31
3	史 部 2}		518	65. 6. 18
4	史 部 3}		520	65. 8. 30
5	經, 子, 補 遺	8,002	405	65. 10. 26
6	韓 國 本 書 名 索 引	—	288	66. 1. 30

②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

本館에 所藏되어 있는 일사 및 가람 文庫에서 國語및 國文學分野의 貴重한 古書 (일사: 1,033部 2,554冊, 가람: 707部 1,606冊) 만을 추려 學界에 널리 利用케 하고자 菊版 프린트版으로 刊行하였다. [344面, 附: 書名索引. 66.5.30刊]

③ 奎章閣圖書中國本整理

1965年1월부터 整理에 着手한 中國本(5,912部 65,568冊)의 年度別計劃과 그 整理現況은 다음 表와 같다.

		1966. 11. 30현재	
		計 劃	實 績
제 1 次 年 度	1965 1/1~12/31	22,000책	19,231책
제 2 次 年 度	1966 1/1~12/31	22,000책	19,917책
제 3 次 年 度	1967 1/1~12/31	21,568책	

2. 文 獻 複 寫

本館에서는 1962年度以來 簡單한 光學機械에 依한 文獻複寫業務를 開始하였으나 初創期이고 또 手工業에 不過하였다. 1964年 6월에 美國하바드燕京學社의 好意에 依하여 마이크로複寫施設을 設置하여 多大한 成果를 올리고 있으며 本校教職員 및 學生에 對한 奉仕는 勿論 貴重文獻의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歐美各國, 中國, 日本國 그리고 東南亞諸國에 널리 普及시키고 있으며 1966年 11月初부터 電子複寫機 (Xerox)施設을 設備하여 短時間 (1枚 1分)에 複寫物을 製作 給付하고 있다.

① 保存用 필름(네가)製作實績

區分	底 本		冊 數	圖 像 (frames)	長 寸 (feet)	備 考	
	種 類	冊 數					
1962		7	50	7	4,203	534	
1963		3	57	10	5,592	803	
1964		26	264	36	20,802	2,661	1964.6 마이크로복사시설도입
1965		63	268	79	52,075	6,022	
1966 11月末現在		74	230	23	25,340	1,644	
計		173	869	155	108,012	11,664	

② 給付用複寫實績

年度別.	음 화 양	화 양	光澤印畫紙	얇은인화지 CP,-D	복사인화지 Photofax	備 考
	Nega	Posi				
1963	—	210	645	—	37	
1964	161	9,114	1,583	—	—	
1965	8,714	33,432	1,353	2,238	70	
1966 11月末現在	4,399	66,345	13,036	4,671	—	
計	13,274	109,101	16,617	6,909	107	

3. 서가목록 정비사업

본관의 서가목록(함가부)은 一종의 紙上書庫라고 볼 수 있는 장서목록으로서 이것은 일정말엽의 사서적의 소집, 해방후의 혼란과 6.25 동란등 연속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그 관리가 소홀하였던 관계로서 각종기록이 산일되어

서가목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이것으로써 장서 점검을한다면 각도서의 명세는 물론 숫자 조작 정확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선 이 기본 대장인 서가목록 정비에 착수 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완성하고 이로써 1967년부터 일반 동양서의 장서 점검을 시행할수 있게 되었으며 장서 점검이 끝나는 대로 동·서양서 별로 본관 장서목록을 출판할 예정이다.

구간 일반동서 양서 서가목록 정비 상황

구분	정비기간	정비책수	비고
서양서	1958. 1月~ 1964. 12月末 (7個年)	147,278책분	現業從事中餘假利用
동양서	1965. 1月~ 1966. 11月 (1年11個月)	285,315책분	2名 고정 배치
계	1958. 1月~ 1966. 11月末 (8年11個月)	432,593책분	

4. 目錄索引作成事業

우리나라 學界에도 점차 學術研究를 위한 二次資料에 대한 認識이 높아져 많은 資料目錄과 索引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소개하는 三次資料의 必要性도 절실하여 目錄, 索引, 圖書解題等 韓國書誌全般에 걸친 文獻目錄을 作成하여 이번號에 高麗文集目錄과 같이 發表케 되었다.

高麗文集目錄은 韓國文集內容索引 作成事業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한 文集目錄中에서 高麗時代分만 뽑아 다른 目錄에서 발췌한 所藏處未詳本을 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韓國文集內容索引 事業의 一部로 高麗文集內容索引 作成에 착수했다.

또한 金石文拓本目錄카드 549枚 李朝 經濟關係論文索引카드 346枚를 作成코 곧 發表할 計劃이다.

서울大學校에서 受入하고 있는 外國定刊物 分類別目錄(알파벳 Index가 붙은)을 위해 1,170枚의 雜誌카드를 作成하여 分類를 끝내었고 油印物로 發刊할 計劃이다.

5. 貴重圖書展示會

本館에서는 1954년 10월 14~17일에 서울大學校八周年紀念行事의 一環으로서 韓國古活字印刷本의 展示會를 가졌고 두해뒤인 1956년 10월 13~17일에는 開校十周年紀念行事의 一環으로서 古圖書의 展示會를 가진바 있었다. 今年으로 開校二十周年을 마지한 本館에서는 紀念行事의 一環으로서 1966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세번째로 貴重圖書展示會를 開催하였다. 특히 이번 展示會에서는 그동안 奎章閣圖書 韓國本(18,774部 69,362冊), 前文理大學長이었던 故 方鍾鉉先生의 舊藏書인 一簣文庫圖書(2,200部 5,200冊 1952年引受) 및 李秉岐先生의 舊藏書인 가람文庫圖書(1,405部 3,665冊 1963年引受) 整理가 完了되어 과거 어느때 보다 貴重한 資料를 豊富하게 展示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古典研究에 새로운 劃期的 契機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이번 展示會에서는 韓國人이 著述한 圖書, 韓國에서 出版된 圖書 및 韓國에 關한 圖書를 中心으로하여 古活字本, 古木版本, 國譯本, 一般史料, 新聞關係等 五部로 나누어 이를 時代順으로 展示하여 우리나라의 活字印刷文化의 發展史, 國語發展史 및 三國以後의 우리나라 歷史의 變遷을 한 눈으로 보게 한 것이 그 特徵이다. 特히 開校 20周年紀念日에는 朴正熙大統領閣下內外分 및 張炯淳國會副議長 및 隨行員一行이 이 展示會를 參觀하시고 榮光스런 賀辭와 激勵의 말씀을 보내셨다.

出品圖書의 冊수는 300여종이나 그 중에서 嚴選하여 解題한 것은 246종으로 국한하는 동시에 後篇에는 英文翻譯을 붙였으며 또 貴重한 資料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하여 圖版을 插入하였다.